

국제환경 · 에너지산업전 8월31일 개막

환경과 에너지 산업을 아우르는 전시회 <2011 국제환경 · 에너지산업전>(ENTECH 2011)이 8월31일 개막한다.

2011년 5회째를 맞는 국제환경 · 에너지산업전은 부산광역시, KOTRA, 국제신문사 공동주최로 9월3일까지 부산 해운대 BEXCO에서 <Clean Energy! Green Earth>라는 주제로 진행된다.

8월31일 오전 11시 개막식 행사를 시작으로 8개국 180개 기업에서 전력 · 발전, 가스, 수질, 소음, 폐기물 처리, 신 · 재생에너지 부문 등 470개 부스를 선보일 예정이다.

남동발전, 동서발전 등 대표적인 전력 · 발전업체를 비롯해 GS건설, 포스코건설, 두산중공업 등이 참가하며, 해외에서도 오스트레일리아 재생에너지 생산기업 Charles I Cookson, 독일 풍력발전 기업 Winergy과 Bard, 중국 태양광발전 기업 Sichuan Injet Electric 등 31개 기업이 참여한다.

풍력사업을 선도하는 독일, 네덜란드 등의 주요 유럽기업들이 참가해 환경 · 에너지 전문 국제전시회로서의 위상을 높일 전망이다.

특히, <Wind Korea 2011>(풍력특별관) 운영을 비롯해 풍력과 에너지 절감 등 재생에너지 분야가 2010년보다 대폭 강화됐다.

Wind Korea 2011에는 부산 · 경남 소재 풍력전문 부품기업, 한국풍력산업협회,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관련 회원사, 독일과 네덜란드 주요 기업 등 34개사가 참가한다.

전시회 기간동안 국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상담회를 마련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 무역 마케팅의 장이 될 전망이다.

부산시는 “대기, 수질, 신 · 재생에너지 등 차세대 미래성장 동력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행사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<화학저널 2011/08/30>